

시론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이 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각양 각색의 축제가 열리며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런 축제장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드론(Drone)이다.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좀 더 생동감있게 전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로 움직이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의미하는 드론은 최신 기술의 척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근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49년 폭탄 투하용 열기구에서 시작된 드론의 역사는 1907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멀티콥터로 형태를 갖추고, 세계 2차대전에서 군사목적으로 널리

드론, 새로운 미래로 날다

활용되었다. 이러한 드론은 민간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드론 자체의 산업적 가치보다는 드론을 활용한 신산업의 발생이 중요해진 것이다.

드론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전세계 민간 드론시장의 70%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구글·인텔·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투어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더 이상 특정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서비스로 변화해가고 있다.

항공촬영을 통한 방송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 긴급구조, 범죄예방, 농업,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의 활용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축구, 레이싱, 클래쉬(clash)와 같은 신종 스포츠가 생겨나고, 드론 멀티미디어라는 신종 직업군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진 1,218대의 드론쇼에 자극받은 중국이 자국 드론산업의 우수성을 강조

하기 위해서 2개월 뒤에 1,374대의 드론쇼를 펼쳐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울 것만 봐도 드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신경전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급성장하는 드론 산업시장을 주목해 지난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내산업 규모를 5년 내에 20배까지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보건 환경이 열악한 섬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물품을 실어 나르는 '메디컬 드론'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고흥군은 여객선 정기항로가 없어 물류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산간 지역에 주소만 입력하면 드론이 알아서 우편이나 택배를 배달해주는 '드론 자율 배송점' 개발에 나서 특광도와 진지도에 올해 시범 운영했고, 광양시도 '시범공역'과 '국가자격실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드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실종자 수색과 정찰 및 측량

·건설 관리·농수산업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고, 노인 인구 비율과 농수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드론은 천혜양식장 예찰 및 조난자 구조 의료 공백과 물류 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병충해 방제와 종자 파종 등에 있어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산업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하고 실증 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3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드론분야 산업 경쟁력 및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드론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넓다. 다양한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드론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임이 분명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칼럼



임철진

광주 서구 광천동장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됐다. 광주·전남 지난 6-8월 평균 최고기온은 30.2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광주의 여름철 폭염일수는 43일(평년 11.5일)을 기록하는 등 올 여름은 폭염이 맹위를 떨쳤다. 일년 내내 더울 것만 같았는데 극심한 폭염도 사라지고 어느덧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필자는 동장직에 관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흔히 생활이 버거운 사람은 여름철보다 겨울이 훨씬 지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광천동 역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으로 공가가 300여곳에 달한다. 저렴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다. 무엇보다 이분들을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룩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차가운 겨울철을 잘 이겨내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바로 황제펭귄이다. 황제펭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바람이 센 남극에서 사는 동물이다.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와 돌풍 속에서 3-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제대로 자지도 않으면서 수백, 수천마리가 무리지어 큰 원을 그리며 자신들의 체온만으로 추위를 견뎌낸다. 그러다가도 저지 견디기 힘든 지경에 다다르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면서 추위를 이겨낸다. 황제펭귄이 동그런 원을 그려가며 서로에게 지탱하고 바람막이가 돼 체온을 유지하며 추위를 이겨내듯 사람들도 추위와 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집이 필요하고, 몸을 보호해줄 의복이 필요하다. 물론 난방이나 먹거리, 입을 거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생계비 지출이 많아 취약계층은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다.

우리 동에서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인 11월 중순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법적 저소득층 1천여세대와 사회보장 행복이음시스템 동절기 취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60여세대 등에 대해 동 맞춤형복지팀, 통장단, 희망지킴이, 복지도우미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겨울나기 보살핌이 필요한 발굴 세대에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공격적 지원을 실시하고 부양거부 또는 기피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지원과 그리고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취약가구는 특별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홍보 및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 관련기관 안내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대상자로 우선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지원하는 등 전 동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자 한다.

필자가 광천동장으로 보직을 옮긴 이후 관내 취약계층을 매일 방문, 살펴보고 있다. 끼니는 거르지

않고 식사는 하고 있는지, 냉장고에 먹을 음식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들어본다. 이 과정에서 얼마 전 재개발지역 한 주택가 2층에 홀로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 A씨 집을 방문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간담말기 환자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1층과 2층에는 쓰레기가 가득해 사람이 왕래하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겨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통장님 등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세대는 위 가정처럼 남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회와 단절된 채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웠다. 이분들의 겨울나기는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일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해 나가고자 한다. 황제펭귄이 지구상에 가장 크고 추위에 잘 적응하도록 진화했지만 극한의 환경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내야 한다.

독자투고

무단횡단사고 이제 근절돼야 한다

경찰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학적이고 최첨단,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분명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하지 않음이 최고 요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요인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아닌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인 것이

다. 내 하나쯤 눈치 봐 가면서 무단횡단하면 괜찮겠지 하고 횡단하는 것이 급기야는 준규행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변인에게 인생 최고의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만다.

사망사고 통계를 봐도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이상이다. 6차선 이상 도로를 아무런 생각없이 무단횡단한다면, 육교 및

횡단 행위, 신호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주취상태에서 중추신경 저하로 인한 세상을 우월적으로 생각하며 겁없이 무단횡단 하는 등 보행자들의 사망사고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적인 관습인 조그만 법규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근절돼야 할 시점이다. 운전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규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운전이란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

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통사망사고를 절반이상으로 줄여야 할 시점이다.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조금만 신경쓰면 줄일 수 있다. 날만 새면 언론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에 관한 건을 볼 때면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횡단보도가 왜 있는가! 그것은 보행자들을 보호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절대적으로 보행위반을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이제 그만

가을이 되고 불꽃축제, 단풍놀이 등 지역마다 특색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다 보니 대형 관광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버스는 수십 명의 승객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버스의 수요가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관광버스 내

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차량 내부 불빛개조 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현실이다.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춤을 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 넘어지거나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버스 내에서 음주를 하는 것이다. 술에 취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감각과 방향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현재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 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엄격히 제재되고 있다. 음주가무 행위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받게 되며, 승객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물게 된다. 관광버스 차주와 운전사, 승객들은 한번 걸러

봤자 일정금액의 범칙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만연하며, 경찰의 단속으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근절에 한계가 있다.

단속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운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이다. 날씨 좋은 가을날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지켜 다양한 행사가 참여하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태환-광주청 17기동대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시 문화산업 투자협약 옥석가려서 해야

광주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가 문화콘텐츠산업이다. 문화콘텐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직접 연계된 사업일 뿐 아니라 4차 산업 혁명시대 광주가 쉽게 선점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광주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문화기술(CT)연구소 유치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고 혁신도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는 등 선도적인 기관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이병훈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문화전문가여서 잘만하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광주문화산업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유망한 기업들이 집적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민선 7기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문화산업 투자협약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3)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부실한 문화산업 투자협약 실태를 질타했다. 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지난달 중순 광주시가 5개 업체와 체결한 155억원 규모의 공동 투자협약이다. 당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수도권 애니메이션·모바일게임 기업 3곳, 지역 문화산업 기업 2곳 등으로 오는 2020년까지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203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 의원은 "협약 업체 상당수가 심각한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어 졸속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30억원의 시설투자자와 30명의 고용을 약속한 P사의 경우 2015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손실과 적자를 기록했고 자본총액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협약 체결 기업인 S사도 기업등급에서 3년 연속 'CCC'를 받았고, 직원 수가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에 불과해 '2022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 55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민선 5기 시절 잘못된 투자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전력이 있다. 눈앞의 실적에만 몰두하다 또 다시 부실에 휘말리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시는 협약에 앞서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소방관 절반 '건강 적신호' 대책마련 절실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공무중 부상을 당하는 공상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 과정과 사후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전국 총 4만3천명의 소방관 가운데 62.5%인 2만6천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았다. 일반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203만명 중 22.4%(45만명)가 이상 진단을 받아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2.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소방관 1천202명 중 5.9%인 672명이 건강 이상 진단을 받았다. 전남 역시 2천340명 중 47.4%인 1천110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이상 진단을 받았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 중 고된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지난해 야간작업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은 46.4%로,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이 16.1%p 가량높게 나타났다. 구급활동 등 공무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 공상자 수는 지난 2013년 291명에서 2017년 602명으로 4년 만에 2.1배가 증가했다.

소방관은 각 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검진 예산은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전국 평균 22만805원)이다.

소방관은 시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시민 안전 역시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유해 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와 당국은 소방관의 건강과 사기진작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석탄값도 고공행진"...화력발전 석탄 연료비 단가 사상최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탄 수입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석탄 화력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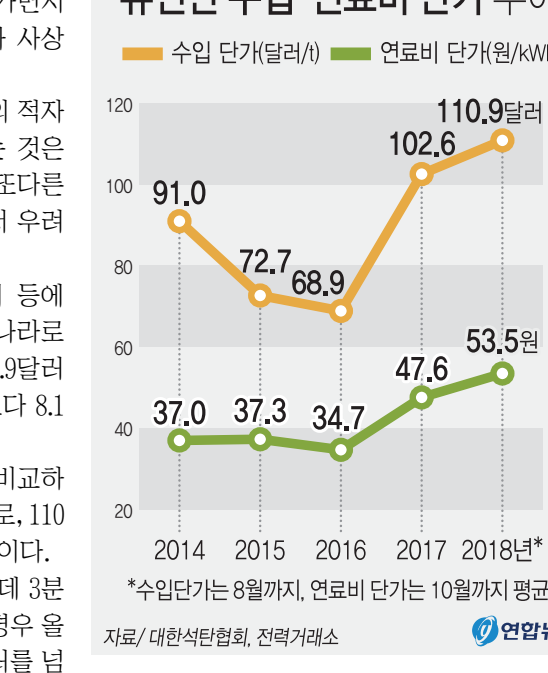
석탄발전 연료비 상승은 한국전력의 적자 심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가뜰이나 어려운 국내 경기에 또다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에너지 업계와 대한석탄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유연탄 단가는 t당 평균 110.9달러로, 지난해 전체 평균(102.6달러)보다 8.1%나 올랐다.

지난 2016년 평균(68.9달러)와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60% 이상 오른 셈으로, 11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량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산 석탄의 경우 올해 1-8월 평균 수입단가가 t당 130달러를 넘어서면서 2016년(78.3달러)의 거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23만8천919GWh로, 국내 총발전량(55만3천905GWh)의 43%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연탄 수입단가가 급등하는 것은 해외 메이저 석탄채굴업체들의 잇단 폐광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연료비 단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석탄 화력의 연료비 단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kWh당 30-40원대로 보험세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평균 47.63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평균 53.55원에 달했다. /연남뉴스

유연탄 수입·연료비 단가 추이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J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details.

